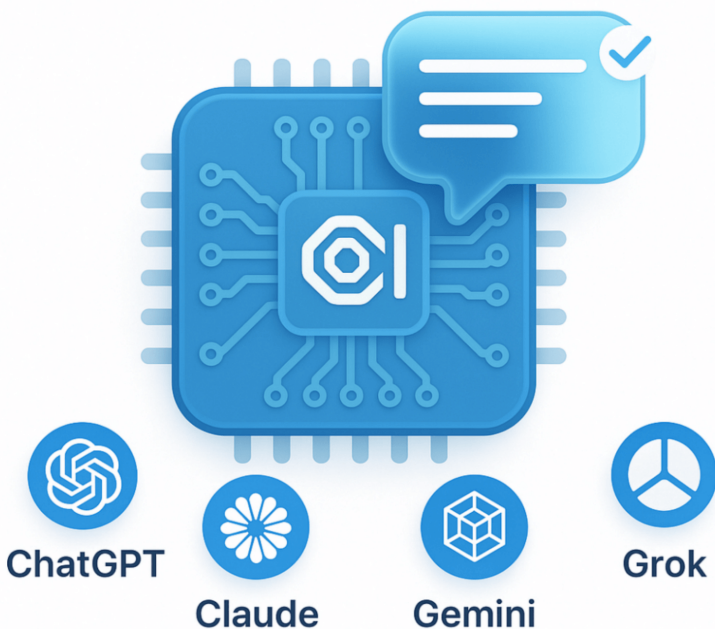


일 잘하는 사람은 이미

AI에게 이렇게 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전 가이드

마케팅·개발·분석·교육·비즈니스 현장에서의 25가지 기법 즉시 활용

박민제 지음

일 잘하는 사람은 이미 AI 에게 이렇게 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전 가이드

발행일 | 2025 년 12 월 15 일

지은이 | 박민제

펴낸이 | 박민제

펴낸곳 | 인테솔코리아미디어

출판사 등록일자 | 2025 년 11 월 12 일

출판사 등록번호 | 제 25100-2025-000078 호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84 신도림 팰러티움 101 동 1401 호

전화 | 010-6764-3590

이메일 | info@exceltir.com

홈페이지 | <https://exceltir.com>

Copyright © 2025 by 박민제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in Korea by 인테솔코리아미디어

ISBN | 979-11-995868-0-2

-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 이 책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인테솔코리아미디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이미
AI 에게 이렇게 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전 가이드

지은이: 박민제 (MinJe Richard Park)

출판사: 인테솔코리아미디어

Part 0: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읽는 방법

학습 경로 가이드

이 책은 25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의 현재 수준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학습 경로를 선택하세요.

학습 경로 맵

초보자 경로 (4 주 과정)

- 1 주차: Part 1 기본 기법
- 2 주차: Part 2 추론 기법 (Chain-of-Thought 필수)
- 3 주차: Part 3~4 중 3 가지 선택 학습
- 4 주차: Part 5 실전 적용 및 프로젝트

중급자 경로 (2 주 과정)

- Part 1 생략 가능
- 1 주차: Part 2~3 집중 학습
- 2 주차: Part 4~5 + 자신의 Use Case 적용

고급자 경로 (1 주 또는 자유)

- 필요한 기법만 선택적 학습
- Part 3, Part 4 의 시스템 통합 기법 집중
- 자신만의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구축

프롬프트 활용 안내

이 책에 수록된 모든 프롬프트는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PDF 버전에서는 해당 프롬프트를 직접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UB 전자책 구매 독자의 경우, 복사-붙여넣기의 제약을 고려하여 별도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https://exceltir.com/prompts_basic

위 링크에서 이 책의 모든 프롬프트 템플릿과 실전 사례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하며, 즉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의 구성

Part 1: 기본 프롬프트 기법

모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가 되는 4 가지 핵심 기법

1. **Zero-Shot Prompting 기법** - 예시 없이 직접 지시
2. **Few-Shot Prompting 기법** - 예시로 학습시키기
3. **Role-Based Prompting 기법** - 역할 부여로 전문성 끌어내기
4. **Meta-Prompting 기법** - AI 가 스스로 프롬프트 개선

학습 목표:

- AI 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이해
- 상황에 맞는 기본 프롬프트 작성 능력
- 프롬프트 품질 자가 진단 능력

예상 소요 시간: 3~4 시간

Part 2: 추론 강화 기법

AI 의 사고 과정을 강화하는 8 가지 고급 기법

5. **Chain-of-Thought Prompting 기법** - 단계별 사고 유도
6. **Tree of Thoughts 기법** - 다양한 사고 경로 탐색
7. **Self-Consistency 기법** - 여러 답변 중 최선 선택
8. **ReAct 기법** - 추론과 행동의 결합
9. **Step-Back Prompting 기법** - 큰 그림 먼저 보기
10. **Least-to-Most Prompting 기법** - 작은 문제부터 해결

11. **Generated Knowledge Prompting 기법** - 배경 지식을 먼저 생성

12. **Reflexion 기법** - 스스로 피드백하고 개선

학습 목표:

-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AI 의 추론 과정 제어 능력
- 품질 높은 답변 일관성 확보

예상 소요 시간: 5~6 시간

Part 3: 고급 시스템 기법

실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6 가지 아키텍처 기법

13. **Prompt Chaining 기법** - 여러 프롬프트 연결

14. **Prompt Pipelining 기법** -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15. **Constitutional AI** - 윤리적 제약 설계

16.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 외부 지식 활용

17. **Function Calling** - API/도구 통합

18. **Multi-Agent Systems** - 여러 AI 협업

학습 목표:

- 프로덕션 레벨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
- 복잡한 워크플로우 자동화
-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

예상 소요 시간: 6~8 시간

Part 4: 특수 목적 기법

특정 상황에 특화된 7 가지 고급 기법

19. **Analogical Prompting 기법** - 유추를 통한 창의적 해결
20. **Socratic Method** - 대화를 통한 깊은 탐구
21. **Adversarial Prompting 기법** - 보안 취약점 발견
22. **Verbosity Control** - 응답 분량 정확한 제어
23. **Scope Discipline** - 요청 범위 엄격 준수
24. **Uncertainty Handling** - 환각 방지와 신뢰성 확보
25. **Structured Extraction** - 비정형→정형 데이터 변환

학습 목표:

- 창의적 문제 해결 및 교육/컨설팅 활용 능력
- AI 시스템 보안과 취약점 이해
- 출력 품질 관리 및 신뢰성 확보 기술
- 비정형 데이터의 구조화 및 정형화 능력

예상 소요 시간: 5~6 시간

Part 5: 실전 적용 가이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실무 활용

- 산업별 활용 전략
-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구축

-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
- 팀 협업 전략
- 지속적 학습

학습 목표:

- 실무 프로젝트 즉시 적용
- 조직 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문화 구축
- 지속적인 개선 체계 확립

예상 소요 시간: 4~5 시간

Part 6: 마치며

- 학습한 25 가지 기법 총정리
 - 기법 선택 가이드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트렌드와 전망
 - 장기적 성장 전략
 - 인증과 커리어
 - 최종 조언
-

에필로그

이 책의 특별한 점

40 년 기업가의 실전 인사이트

이 책은 단순한 기술 매뉴얼이 아닙니다. 40 년간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동해온 베테랑 기업가의 실전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책 전체에 걸쳐 6 가지 특별 섹션(표시):

1. **컴퓨터 혁명 vs AI 혁명** (Part 1 도입부)
 - 1980 년대 컴퓨터 도입기와 현재 AI 시대의 유사점
 - 초기 도입자가 얻은 경쟁 우위의 교훈
2. **40 년 기업가 여정의 교훈** (Part 2 도입부)
 - 연속 창업가로서의 시행착오와 성공 패턴
 - AI 시대 기업가정신의 진화
3. **가르침의 기술** (Part 3 Role-Based 섹션)
 - 수십 년간 팀을 이끌며 배운 효과적인 교육법
 - 프롬프트에 적용하는 리더십 원칙
4. **비즈니스 직관 vs 데이터** (Part 4 ReAct 섹션)
 - 경험으로 쌓인 직관과 AI 분석의 조화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균형점
5. **관점의 전환** (Part 5 실전 적용)
 - 다양한 산업 경험에서 얻은 통찰
 - 크로스 도메인 사고의 힘

6. 위임의 지혜 (Part 6 Multi-Agent)

- 성공적인 팀 빌딩과 AI 에이전트 설계의 공통점
- 신뢰와 통제의 균형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적극적 학습 전략

1. 실습 중심 접근

각 기법마다 제공되는 템플릿을 즉시 실행해 보세요.

실습 체크리스트:

-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
-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
- 결과를 문서화
-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기록
- 개선점을 도출

2. 프롬프트 저널 작성

학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프롬프트 저널**을 만드세요.

저널 구조:

이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구체적 성과 지표

단기 (1-2 주)

- 일상 업무 생산성 20-30% 향상
- AI 도구 활용 빈도 2-3 배 증가
- 프롬프트 작성 시간 50% 감소

중기 (1-2 개월)

- 복잡한 프로젝트 자동화 3-5 개 구축
- 팀 내 프롬프트 전문가로 인정
-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50+ 개 구축

장기 (3-6 개월)

- AI 기반 워크플로우 완전 전환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컨설팅 가능
- 개인/팀 생산성 2-3 배 증가

핵심 역량

이 책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문제 정의 능력

- 모호한 요구사항을 명확한 프롬프트로 전환
- AI 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

2. 전략적 사고

-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법 선택
- 여러 기법을 조합한 복합 전략 수립

3. 시스템 설계

- 프롬프트 체인과 파이프라인 구축
- 확장 가능한 AI 워크플로우 설계

4. 품질 관리

- 프롬프트 성능 측정 및 개선
- 일관성 있는 고품질 결과 보장

5. 창의적 응용

- 새로운 문제에 기법 적용
- 독창적인 프롬프트 패턴 개발

학습 진도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도구

각 Part 를 마친 후 다음을 확인하세요:

40 년 기업가의 한마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도입자는 엄청난 경쟁 우위를 얻었죠. AI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은 '초기 도입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85 년 온산공장의 단 한 대 컴퓨터

1984 년 12 월, 회사에서 최초로 신입사원에게 전산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GWBASIC 이 나오기 전, 종로 2 가 컴퓨터 학원에서 CP/M 을 배웠습니다. IF-ELSE, PRINT... 낯선 명령어와 씨름했죠.

1985 년 1 월, 온산공장에 배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없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여전히 전동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5 월, 기술연구소 관리과로 발령받았습니다. 공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퍼스널 컴퓨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자료실 안, 제 월급의 15 배가 넘는 가격의 단 1 대.

관리과장님이 제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수기로 하던 도서 대출을 전산화해보게."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 키워드로 책 검색
- 대출 현황 확인
- 반납 예정일 표시
- 라인프린터로 출력

당시 KAIST 출신 석사 연구원과 저, 단 두 명만 프로그래밍이 가능했고, 연구원은 병가 중이었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1 개월간 밤을 새웠습니다. 공장에서 쪽잠을 자며 코드를 짰습니다.

디버깅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고치고...

마침내 과장님께 시연을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책 목록이 떴습니다. 대출 상태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라인프린터가 소리를 내며 리스트를 뽑아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프로그래밍 지식'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40 년이 지난 지금, AI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ChatGPT 에게 물으면 코드를 짜줍니다. Claude 에게 부탁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85 년의 그 컴퓨터와 2025 년의 AI 는 같은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생산성을 주는.

제가 온산공장에 있는 단 한 대 뿐인 컴퓨터를 다룰 수 있었기에 다른 동료들과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듯이, 지금 AI 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기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1985 년의 제가 가졌던 그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을 새울 필요는 없습니다. AI 가 코드를 대신 짜줍니다.

당신이 CP/M 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기 도입자가 가져가는 기회의 크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박민제, INTESOL KOREA 대표 | 40 년 베테랑 기업가

다음: Part 1 - 기본 프롬프트 기법 →

Part 1: 기본 프롬프트 기법

개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토대가 되는 4 가지 핵심 기법을 배웁니다. 이 기법들은 모든 고급 기술의 기초가 되며, 일상적인 AI 활용에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학습 목표:

- AI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이해
- 상황에 맞는 기본 프롬프트 작성
- 프롬프트 품질 자가 진단 능력

예상 소요 시간: 3~4 시간

💡 기본 기법의 실제 가치

일반 사용자의 AI 활용 중 약 70-80%는 이 4 가지 기본 기법만으로 해결됩니다. Zero-Shot 과 Few-Shot 만 제대로 활용해도 이메일 작성, 문서 요약,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등 대부분의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급 기법은 특수 상황에서 필요하지만, 기본기가 부실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화려한 테크닉보다 이 기초 4 가지를 반복 연습하는 것이 실제 생산성 향상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Part 만 확실히 익혀도 AI 를 실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Zero-Shot Prompting

개념

Zero-Shot Prompting 기법은 예시 없이 직접적인 지시만으로 AI에게 작업을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원리:

-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
- 예시나 사전 학습 없이 즉시 실행 가능
- 단순하고 명확한 작업에 효과적

언제 사용하나?

적합한 상황

- 간단하고 명확한 작업
- 빠른 응답이 필요할 때
-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요청
- AI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영역

부적합한 상황

- 복잡하고 애매한 작업
- 특정 형식이나 스타일 요구
- 도메인 특화 지식 필요
- 높은 정확도가 중요한 경우

작성 원칙

1. 명확성 (Clarity)

✗ 나쁜 예: "이거 좀 정리해줘"

☑ 좋은 예: "다음 데이터를 연도별로 정렬하고, 각 항목을 '-'로 구분해서 목록으로 만들어줘"

2. 구체성 (Specificity)

✗ 나쁜 예: "요약해줘"

☑ 좋은 예: "이 문서를 3 줄로 요약해줘. 각 줄은 핵심 포인트 하나씩."

3. 형식 지정 (Format)

✗ 나쁜 예: "리스트로 만들어줘"

☑ 좋은 예: "다음 형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줘:"

1. [항목명]: [설명]

2. [항목명]: [설명]"

4. 제약 조건 (Constraints)

✗ 나쁜 예: "이메일 써줘"

☑ 좋은 예: "200 자 이내의 간결한 업무 이메일을 작성해줘. 격식있는 톤으로."

실전 예시

예시 1: 이메일 작성

프롬프트:

고객에게 보낼 제품 지연 안내 이메일을 작성해줘.

- 배송이 3일 지연됨
- 물류 센터 시스템 점검이 원인
- 보상으로 10% 할인 쿠폰 제공
-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
- 200 자 이내, 정중한 톤

결과: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이 물류 센터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3일 지연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보상으로 다음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을

발송해드렸습니다.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지원팀 드림

예시 2: 데이터 정리

프롬프트:

다음 데이터를 연도별로 정렬하고 마크다운 테이블로 만들어줘:

- 2023 년 매출 1.2 억
- 2021 년 매출 8 천만원
- 2022 년 매출 1 억
- 2024 년 예상 매출 1.5 억

컬럼: 연도 | 매출 | 전년 대비 증가율

결과:

연도	매출	전년 대비 증가율
2021	8 천만원	-
2022	1 억	25%
2023	1.2 억	20%
2024(예상)	1.5 억	25%

예시 3: 번역 작업

프롬프트:

다음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비즈니스 미팅에서 사용할 격식있는 표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 시에 회의가 가능하신가요?
신제품 출시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결과:

"Would you be available for a meeting next Tuesday at 2 PM?
I would like to discuss the launch schedule for our new product."

예시 4: 요약 작성

프롬프트:

다음 뉴스 기사를 3 줄로 요약해줘. 각 줄은 핵심 포인트 하나씩:

[긴 뉴스 기사 내용]

출력 형식:

- [핵심 포인트 1]
- [핵심 포인트 2]
- [핵심 포인트 3]

예시 5: 리스트 생성

프롬프트:

스타트업이 첫 6 개월 동안 해야 할 마케팅 활동 10 가지를 우선순위 순으로 나열해줘.

형식:

1. [활동명] - [이유] - [예상 효과]

결과:

1. 타겟 고객 정의 - 모든 마케팅의 기초 - 리소스 낭비 방지
 2. MVP 랜딩 페이지 제작 - 온라인 거점 확보 - 즉시 고객 유입 가능
 3. SEO 기본 설정 - 장기 유기 트래픽 확보 - 지속적 노출
 4.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 - 브랜드 인지도 구축 - 커뮤니티 형성
 5. 콘텐츠 마케팅 시작 - 전문성 입증 - 신뢰 구축
- ...

템플릿 라이브러리

템플릿 1: 업무 자동화

[작업명]을/를 수행해줘.

조건:

- [조건 1]
- [조건 2]
- [조건 3]

출력 형식:

[원하는 형식 상세히 설명]

제약사항:

- [제약 1]
- [제약 2]

템플릿 2: 콘텐츠 생성

[주제]에 대한 [콘텐츠 유형]을 작성해줘.

타겟 독자: [독자 설명]

길이: [길이 지정]

톤: [격식있음/캐주얼/전문적]

포함할 내용:

- [포인트 1]

- [포인트 2]

- [포인트 3]

템플릿 3: 분석 요청

[데이터/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음을 알려줘:

1. [분석 항목 1]

2. [분석 항목 2]

3. [분석 항목 3]

출력은 [형식]으로 해줘.

템플릿 4: 비교 분석

[대상 A]와 [대상 B]를 비교해줘.

비교 기준:

- [기준 1]
- [기준 2]
- [기준 3]

표 형식으로 출력하고, 마지막에 추천을 해줘.

주의사항

1. 과도한 간결함 지양

✗ "정리해줘"

"이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의 합계를 계산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줘"

2. 암묵적 가정 피하기

✗ "이거 번역해줘" (어느 언어로?)

"이 문장을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줘. 비즈니스 문서용 격식있는 표현으로."

3. 모호한 용어 사용 금지

✗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줘" (전문적이란?)

☑ "산업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학술 논문 스타일로 재작성해줘"

효과성 평가

Zero-Shot 의 효과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 첫 시도에서 원하는 결과의 70% 이상 달성
- 추가 수정 요청이 2 회 이하
- 출력 형식이 지시사항과 일치
- 내용의 정확성이 허용 범위 내
- 처리 시간이 기대치 이내

70% 미만이면 → Few-Shot 이나 다른 기법 고려

가장 많이 쓰는 기본형

Zero-Shot 은 예시 없이 바로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메일 초안 작성해줘", "이 코드 설명해줘"처럼 일상 업무의 80% 이상을 커버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명확한 지시만 있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2. Few-Shot Prompting

개념

Few-Shot Prompting 기법은 원하는 결과의 예시를 몇 개 제공하여 AI가 패턴을 학습하고 유사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핵심 원리:

- 2~5 개의 입출력 예시 제공
- AI가 패턴을 파악하고 일반화
- 일관성 있는 형식과 스타일 유지

언제 사용하나?

적합한 상황

- 특정 형식이나 스타일이 중요할 때
- 도메인 특화 작업
- 일관성이 중요한 반복 작업
- 복잡한 구조화된 출력

부적합한 상황

- 단순하고 명확한 일회성 작업
- 예시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때
- 매우 독창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원할 때



작성 원칙

1. 예시의 품질

좋은 예시의 특징:

- 명확하고 대표적인 사례
- 출력 형식이 일관적
- 충분한 다양성 (2-5 개)
- 예시 간 패턴이 명확

2. 예시의 수량

1-Shot: 간단한 패턴, 명확한 작업

2-3 Shot: 일반적인 사용 (권장)

4-5 Shot: 복잡한 패턴, 높은 정확도 요구

6+ Shot: 대부분 불필요, 토큰 낭비

3. 예시의 구조

[작업 설명]

예시 1:

입력: [입력 1]

출력: [출력 1]

예시 2:

입력: [입력 2]

출력: [출력 2]

예시 3:

입력: [입력 3]

출력: [출력 3]

이제 다음을 처리해줘:

입력: [실제 입력]

출력:



실전 예시

예시 1: 제품 설명 생성

프롬프트:

제품명을 주면 마케팅용 제품 설명을 생성해줘.

예시 1:

입력: 무선 이어폰

출력: 🎧 완전 무선의 자유! 최대 24 시간 재생, IPX7 방수,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으로

당신만의 음악 세계에 빠져보세요. 통근길도 운동할 때도 완벽한 사운드 파트너.

예시 2:

입력: 스마트 워치

출력: 🕒 손목 위의 건강 코치! 24 시간 심박수 모니터링, 수면 분석,
50 가지 운동 모드로

당신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5 일 배터리로 충전 걱정 끝!

예시 3:

입력: 무선 청소기

출력: 🧹 청소의 혁명! 200W 강력 흡입력, 80 분 장시간 사용, 0.3kg
초경량 디자인으로

구석구석 먼지 없는 집을 만들어보세요. 벽걸이 충전 거치대 포함.

이제 다음 제품의 설명을 만들어줘:

입력: 전기 자전거

출력:

결과:

🚲 도심 속 스마트 라이딩! 80km 주행거리, 페달 보조 5 단계, 접이식
디자인으로

출퇴근도 주말 라이딩도 자유롭게. USB 충전 포트와 LED 라이트까지,
당신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할 친환경 모빌리티입니다.

예시 4: 데이터 변환

프롬프트:

자연어 날짜를 ISO 8601 형식으로 변환해줘.

예시 1:

입력: "2024 년 1 월 15 일 오후 3 시 30 분"

출력: 2024-01-15T15:30:00+09:00

예시 2:

입력: "내일 오전 10 시"

출력: 2025-01-07T10:00:00+09:00 (오늘이 2025-01-06 이라고 가정)

예시 3:

입력: "다음 주 월요일 정오"

출력: 2025-01-13T12:00:00+09:00

이제 다음을 변환해줘:

입력: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 시"

결과:

출력: 2025-11-14T17:00:00+09:00

```
def calculate_average(scores):
```

```
    """
```

```
    점수 리스트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

```
    Args:
```

```
    scores (list): 숫자(정수 또는 실수)로 구성된 점수 리스트.
```

```
    Returns:
```

```
    float: 점수들의 평균값.
```

```
    Raises:
```

```
    ZeroDivisionError: 리스트가 비어 있을 경우 발생.
```

```
    """
```

```
    return sum(scores) / len(scores)
```

템플릿 라이브러리

템플릿 1: 분류 작업

[항목]을 분류해줘.

예시 1:

입력: [예시 입력 1]

카테고리: [카테고리 1] | [추가 정보]

예시 2:

입력: [예시 입력 2]

카테고리: [카테고리 2] | [추가 정보]

예시 3:

입력: [예시 입력 3]

카테고리: [카테고리 3] | [추가 정보]

이제 다음을 분류해줘:

입력: [실제 입력]

템플릿 2: 변환 작업

[입력 형식]을 [출력 형식]으로 변환해줘.

예시 1:

입력: [원본 1]

출력: [변환 1]

예시 2:

입력: [원본 2]

출력: [변환 2]

이제 다음을 변환해줘:

입력: [실제 입력]

출력:

템플릿 3: 생성 작업

[조건]에 맞는 [콘텐츠]를 생성해줘.

예시 1:

조건: [조건 1]

결과: [생성 결과 1]

예시 2:

조건: [조건 2]

결과: [생성 결과 2]

이제 다음 조건으로 생성해줘:

조건: [실제 조건]

결과:

주의사항

1. 예시의 일관성

✗ 나쁜 예: 예시마다 다른 형식 사용

예시 1: "결과: 긍정"

예시 2: "감성 → 부정적"

예시 3: "[Positive]"

좋은 예: 모든 예시가 동일한 형식

예시 1: "감성: 긍정 | 신뢰도: 높음"

예시 2: "감성: 부정 | 신뢰도: 중간"

예시 3: "감성: 중립 | 신뢰도: 높음"

2. 예시의 대표성

나쁜 예: 극단적이거나 예외적인 경우만

예시 1: 최고점

예시 2: 최악점

좋은 예: 다양한 범위 커버

예시 1: 일반적인 긍정 사례

예시 2: 중립적인 사례

예시 3: 일반적인 부정 사례

3. 예시 수의 최적화

너무 적음 (0-1 개): 패턴 학습 불충분

적절함 (2-3 개): 대부분의 경우 충분

많음 (4-5 개): 복잡한 패턴

과다 (6+개): 토큰 낭비, 비효율

심화 팁

Tip 1: 옛지 케이스 포함

정상 케이스 2 개 + 옛지 케이스 1 개 조합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예시 2: 다른 일반적인 경우

예시 3: 특수한 경우 (예외 처리 예시)

Tip 2: 점진적 복잡도

예시 1: 간단한 경우

예시 2: 약간 복잡한 경우

예시 3: 가장 복잡한 경우

→ AI 가 점진적으로 패턴 학습

Tip 3: 명시적 패턴 설명

[예시 제공]

패턴 설명:

- [규칙 1]

- [규칙 2]

- [규칙 3]

위 패턴을 따라서 처리해줘.

효과성 평가

Few-Shot 의 효과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 출력 형식이 예시와 95% 이상 일치
- 스타일과 톤이 일관적
- 예시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
- 처음 시도에서 80% 이상 만족
- 반복 작업에서 일관성 유지

80% 미만이면 → 예시 개선 또는 다른 기법 고려

예시가 답이다

Few-Shot 은 2-3 개의 예시를 보여주고 같은 패턴으로 작업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라는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Zero-Shot 보다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일관된 형식이나 톤이 필요한 작업에서 필수적이며, 복잡한 설명 대신 예시 몇 개면 충분합니다.

3. Role-Based Prompting

가르침의 기술: 역할이 만드는 시너지

Long-Time-Liner 시절 이야기입니다. 반영구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죠. 고객 문의에 적절히 대응하고, 전문가 컨설팅으로 유도한 뒤, 최종 시술로 마무리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제게는 두 명의 대조적인 직원이 있었습니다.

Stephanie - 내성적인 I 타입.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Sue - 외향적인 E 타입. 에너지 넘치고 사교적이었죠.

초기에는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성과를 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역할 재정의:

저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Sue 에게는 대면 접객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고객을 편안하게 만들었으니깐요. Stephanie 에게는 비대면 전화 상담을 맡겼습니다. 차분한 설명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호 피드백 시스템**을 설계했죠. Sue 가 대면 접객할 때, Stephanie 가 옆에서 관찰하며 노트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줍니다. "상하 관계의 지시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의 조언으로.

반대로 Stephanie 가 전화 상담할 때는 Sue 가 듣고 피드백합니다.

놀라운 발견:

Sue 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Stephanie 가 지적했죠. "여기서 고객이 멈췄어요. 확인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Stephanie 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조심스럽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Sue 가 말했습니다. "더 확신 있게 말하면 고객이 신뢰할 거예요."
3 개월 후, 영업 실적은 전 분기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정확한 원리:

이것이 바로 **Role-Based Prompting** 기법입니다.

"고객 문의에 답변해줘" (일반 지시) vs "너는 친절한 상담사 Sue 야. 밝고 에너지 넘치게 답변해줘" (역할 부여)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면, AI 는 그 역할에 맞는 사고방식과 톤으로 답변합니다.

그리고 **Multi-Agent 시스템**은 이 원리를 확장합니다.

- Agent 1 (Sue 역할): "이 제품을 긍정적으로 분석해줘"
- Agent 2 (Stephanie 역할): "위 분석의 약점을 차분히 지적해줘"
- Agent 3 (매니저 역할): "두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해줘"

Stephanie 와 Sue 가 서로를 보완했듯이, 서로 다른 역할의 AI 들이 상호 검증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적재적소"가 아니라 "역할 정의 + 상호 학습 구조"

AI 도 똑같습니다.

- 박민제, INTESOL KOREA 대표 | 40 년 베테랑 기업가

개념

Role-Based Prompting 기법은 AI 에게 특정 역할이나 전문가 페르소나를 부여하여 해당 관점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핵심 원리:

- AI가 특정 전문가 역할 수행
- 해당 분야의 지식과 관점 활용
- 일관된 톤과 스타일 유지

언제 사용하나?

적합한 상황

-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 특정 관점의 분석 필요
- 일관된 페르소나 유지 중요
- 창의적이고 맥락적인 답변 필요

부적합한 상황

- 단순 사실 확인
- 객관적 데이터 처리
- 역할이 결과에 영향 없는 작업

역할 정의 원칙

1. 명확한 역할 설정

모호함: "전문가로서 답해줘"

명확함: "20년 경력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서 답해줘"

2. 맥락과 배경 제공

너는 [역할]이야.

배경:

- [경력/경험]
- [전문 분야]
- [관점/가치관]

이 역할로 다음 질문에 답해줘:

[질문]

3. 행동 양식 정의

너는 [역할]이야.

답변 시:

- [특징 1] (예: 데이터 기반 판단)
- [특징 2] (예: 실용적 조언 제공)
- [특징 3] (예: 구체적 예시 포함)



실전 예시

예시 1: 경영 컨설턴트

프롬프트:

너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15 년 근무한 전략 컨설턴트야.

전문 분야:

- 비즈니스 전략 수립
- 시장 진입 전략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답변 스타일:

- 데이터와 프레임워크 기반
-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시
- 리스크와 기회 균형 있게 분석

다음 상황에 대해 조언해줘:

"AI 챗봇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기 6 개월 전략을 제안해주세요."

결과:

전략적 관점에서 3 단계 접근을 제안드립니다:

****Phase 1: 시장 검증 (Month 1-2)****

- Beachhead 전략: 특정 산업 1 개 집중 (예: 이커머스 고객지원)
- MVP 개발: 핵심 기능 3 가지로 제한

- 파일럿 고객 5-10 곳 확보
- KPI: 고객 만족도 80%+, 응답 정확도 85%+

****Phase 2: 제품-시장 적합성 확보 (Month 3-4)****

- 파일럿 피드백 기반 제품 개선
- 가격 모델 테스트 (Freemium vs Subscription)
- 초기 고객 10-20 곳으로 확장
- KPI: 월 활성 사용자 증가율 30%+, Churn Rate 10% 이하

****Phase 3: 성장 기반 구축 (Month 5-6)****

- 세일즈 프로세스 표준화
- 콘텐츠 마케팅 시작
- 시드 투자 준비
- KPI: MRR \$10K+, 고객 획득 비용 회수 기간 6 개월

****주요 리스크:****

- 대기업 경쟁사 (ChatGPT, Claude 등)
- 기술 차별화 부족
- 규제 변화 (AI 규제법)

****완화 전략:****

- 특정 산업 특화로 차별화
- 인간-AI 하이브리드 모델
- 규제 준수 우선 설계

템플릿 3: 비평가/평가자

너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분야] 비평가야.

평가 기준:

- [기준 1]
- [기준 2]
- [기준 3]

다음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줘:
[평가 대상]

⚠ 주의사항

1. 과도한 역할 설정 지양

✘ 과도함:

"너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구글에서 10 년, 애플에서 5 년 근무하고, 3 개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고,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 적절함:

"너는 10 년 경력의 제품 관리자야. SaaS 스타트업 경험이 있어."

2. 역할 일관성 유지

한 대화 내에서 역할을 자주 바꾸면 혼란
→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면 새 대화 시작

3. 역할의 한계 인식

역할만으로 전문 지식이 생성되지 않음
→ 역할 + 구체적 지시 조합이 효과적

심화 팁

Tip 1: 다중 역할 활용

너는 두 가지 관점으로 답변해줘:

1. [역할 A] 관점:

[역할 A의 답변]

2. [역할 B] 관점:

[역할 B의 답변]

3. 통합 제안:

두 관점을 종합한 최종 제안

Tip 2: 페르소나 디테일 추가

역할: 마케팅 디렉터

성격:

- 데이터 중심적
- 창의적이지만 현실적
-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경험:

- B2B SaaS 7 년
- D2C 브랜드 3 년

이 페르소나로 답변해줘.

Tip 3: 역할 전환 명령

[이전 대화 맥락]

이제 역할을 바꿔서 다시 분석해줘:

새 역할: [새로운 역할]

관점: [새로운 관점]

에필로그

프롬프트라는 새로운 언어와 함께 여는 다음 10 년

2022 년 11 월 30 일, ChatGPT 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던 날
나는 첫 대화창에 그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녕.”

그때의 나는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똑똑한 인공지능이니까 내가 대충 말해도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충 물으면, 대충 쓸 만한 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떤 답은 얼토당토않았고, 어떤 답은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걸 정말 계속 써야 할까?”

호기심은 점점 회의감으로 바뀌었고, 적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흘러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질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구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너를 가장 잘 쓸 수 있냐?”

나는 ChatGPT 에게, Claude 에게, Grok 에게, Gemini 에게
내가 사용하는 인공지능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프롬프트.

그때부터 나는 인공지능에게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바꾸고,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건과 형식, 기준을 명확히 적기 시작하자

답의 깊이와 정확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나는

머릿속에 그리는 결과물의 80~90% 수준에 도달하는 답변을

거의 매번 받아보는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이론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에이전틱 AI 인 **Manus** 와 함께

INTESOL 의 다국어 웹사이트 **intesol.kr** 과 **intesol.io** 두 개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영어와 프랑스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구조,

예전 같았으면 기획자·디자이너·개발자·번역가가 모두 필요했을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내가 원하는 구조와 기능, 톤과 스타일, 타겟 독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AI 는 그 요구를 반영한 설계와 코드를 스스로 짜고 최종 배포할 패키지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 이 사이트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 최적화된 구조 덕분에 로딩 속도가 밀리초 단위로
반응합니다.

과거의 나였다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프롬프트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인공지능과 함께 현실을 바꾸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롬프트 경험 자체를
책으로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전통적인 출판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원고를 탈고해 출판사에 투고하고,
교정·편집·디자인·마케팅을 모두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사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출판 구조를 살펴본 순간, 냉정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에게 돌아오는 인세는 통상 10% 안팎,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이 약 40%,
나머지 50%가 출판사의 몫입니다.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책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
출판사 직원들의 노고와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책을 낸 적이 없는 무명 저자에게
얼마나 많은 출판사가 관심을 가져줄지,

그리고 설령 계약을 한다 해도 그 조건이 과연 저자에게 유리할지, 사업가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어떤 프롬프트 관련 책들이 나와 있는지,
그 책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1인 출판사를 설립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ISBN은 어디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자가 출판을 할 때 법적·세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쓰려는 책의 내용은 실제로 시장성이 있는지.

인공지능은 마치 한 곳의 출판사를 통째로 컨설팅 하듯
차근차근 단계별 답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조사, 독자 분석, 기획과 목차 설계,
원고 구조 점검, 보완이 필요한 장과 사례 제안,
표지 콘셉트와 제목 후보, 온라인 서점용 소개 문구,
출간 이후 30일·90일 단위 마케팅 계획과 채널별 전략까지.

예전 같았으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자가 출판의 전 과정**
이제는 프롬프트를 통해 인공지능과 함께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은
인공지능이 혼자 쓴 책도 아니고,
내가 혼자 쓴 책도 아닙니다.

프롬프트라는 언어를 매개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ChatGPT, Claude, Grok, Gemini, Manus 를 비롯한 여러 인공지능들.

내가 던진 서툰 프롬프트들까지 묵묵히 받아주었고,

부족한 지시를 스스로 보완해 가며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내용과 구조를 함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이 도전을 지지해 준 가족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미셸(Michelle)은

현실적인 조언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딸 애슐리(Ashley)는

“아빠의 경험과 생각은 한 번은 꼭 글로 남겨야 한다”고 말하며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들 토니(Tony)는

AI 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로서

독자의 눈높이에서 솔직한 피드백을 건네며

이 책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책이 되도록 균형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들의 응원과 믿음이 없었다면
이 책은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다가오는 10 년, 우리는 프롬프트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 인터넷 혁명, 모바일 시대의 도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두려움 대신 실험을 택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기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프롬프트라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은
도구의 노예가 아니라,
기술을 파트너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빠르게 실현하고,
더 멀리 확장하며,
변화가 빠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 담긴 25 가지 기법, 100 개의 템플릿, 50 개의 실제 사례는
그 여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실전 도구 상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법의 개수가 아니라,

프롬프트라는 언어로

인공지능과 얼마나 진지하고 명확하게 대화하느냐 하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나의 시작은 그저 “안녕” 한 마디였습니다.
당신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박민제
2025 년 12 월

“미래는 프롬프트를 쓰는 사람 편이다.”

이 책에 대한 질문이나 피드백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연락처

박민제 (MinJe Richard Park)

 링크드인: [linkedin.com/in/minjerichardpark](https://www.linkedin.com/in/minjerichardpark)

 이메일: info@exceltir.com

 웹사이트: <https://exceltir.com>

 출판사: 인테솔코리아미디어

부록

- A. 프롬프트 템플릿 모음**
- B. 산업별 사용 사례**
- C. 용어 사전**
- D. 참고 문헌**

"The journey of a thousand prompts begins with a single try."

- 일 잘하는 사람은 이미 AI에게 이렇게 쓴다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무 가이드

프롬프트 활용 안내

이 책에 수록된 모든 프롬프트는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PDF 버전에서는 해당 프롬프트를 직접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UB 전자책 구매 독자의 경우, 복사-붙여넣기의 제약을 고려하여 별도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https://exceltir.com/prompts_basic

위 링크에서 이 책의 모든 프롬프트 템플릿과 실전 사례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하며, 즉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mpt Engineering for Developers"

- DeepLearning.AI & OpenAI
- <https://www.deeplearning.ai/short-courses/chatgpt-prompt-engineering-for-developers/>

참고: 이 책의 모든 내용은 2025 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위의 공식 문서와 커뮤니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END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
